"SK팜 선례, 따상 기대감"… '코로나 무색' 인파 인산인해

〈공모가 2배 뒤 상한가〉

현장에서

카카오게임즈 청약 현장

비대면 청약 가능에도 대기석 꽉차
역대 국내 IPO 수요예측 최고 경쟁률
온라인 청약 서비스 일시 중단하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는 공포의 무게도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열기를 누르지 못했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카카오게임즈가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도 과열 양상을 보이며 예고된 흥행을 이어갔다.

카카오게임즈는 전체 공모 물량 1600만주의 20%인 320만주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물량으로 배정했다. 공동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각각 176만주와 128만주, 인수회사인 KB증권에 16만주가 배정됐다.

전날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은 1479대 1로 역대 국내 IPO 수요예측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희망밴드(2만~2만4000원) 최상단인 2만4000원에 확정됐다.

◆ 코로나도 무색… 청약 현장 인산인해

1일 오전 10시 30분에 방문한 한국투자증권 서울 여의도지점. 카카오게임즈 청약이 시작되기까지 30분가량 남았음에도 창구로 가려면 8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대기석은 꽉 차 있었다.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창구에선 청약이 불가능했다. 청약하려는 투자자는 홈트레이딩서비스(HTS)와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ARS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가 영업점에 몰렸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50대 이상 장년층 투자자 대부분이었다. 청약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카카오게임즈 관련 기사를 읽고 있는 사람도 보였다.

투자자 강 모씨(68)는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총 10억원 가량의 여윳돈을 끌어모았다고 했다. 강씨는 "자금을 둘 곳이 없어 수익이 날 수 있는 인기 공모주에 돈을 넣기로 했다"고 했다.

청약 시간인 11시가 되자 영업점 직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여기 좀 와달라"며 청약 방법을 묻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창구 신청이 가능한 삼성증권 강북금융센터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렸다. 영업점 관계자는 "비대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안내를 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투자자가 왔다"며 "평소보다 4배는 더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1일 오전 11시 30분 삼성증권 강북금융센터에서 투자자들이 창구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송태화 기자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온라인 청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MTS 일부 서비스에 오류도 생겼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첫날부터 카카오게임즈 청약이 많이 몰리며 시스템이 다소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이 과열될수록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반 투자자의 청약 증거금률은 50%다. 청약 시 원하는 금액의 절반을 미리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만일 카카오게임즈가 SK바이오팜만큼의 일반 청약 경쟁률(323.02대 1·통합 기준)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증거금 1억원으로 약 8300주(주당 2만4000원)의 주식을 청약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25주가량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SK바이오팜을 넘어 일반 수요예측에서도 사상 최고 경쟁률을 경신할 경우 1억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것은 2주가량이 전부일 수도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경쟁이 센 탓에 많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정도까진 알고 있다"며 "있는 사람만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불합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일단 넣고 보자"… 카카오게임즈도 '따상' 기대

SK바이오팜의 선례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기에 충분했다. SK바이오팜은 국내 IPO 사상 최대 규모인 31조원의 증거금이 몰린 이후 지난 7월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가격으로 시초가 형성한 뒤 상한가)'에 성공한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가 최상단(2만4000원)에 결정됐음에도 시장에선 희망밴드 자체가 실제 기업가치보다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개발, 퍼블리싱까지 게임회사로서 갖춰야할 모든 것을 갖췄다"며 카카오게임즈의 적정주가로 3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는 "장외에서 현재 6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과 SK바이오팜 학습효과 등으로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다"며 "상장 후 조정이 있더라도 첫날엔 공모가 2배 수준인 5만원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삼성증권 영업점에서 만난 직장인 투자자 김 모(55)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회사인진 솔직히 잘 모른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는 만큼 SK바이오팜처럼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결과는 2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된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일이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BTS, 韓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1위 '새역사'

비영어권 가수 진입 어려운 차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100' 순위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현지시간으로 31일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최신 차트에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

방탄소년단이 이제까지 핫 100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올해 2월 발매한 정규 4집 타이틀곡 '온'(ON)의 4위였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을 네 차례 차지한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를 핫 100 정상에 올려놓음으로써 빌보의 두 차트를 석권하게 됐다. 핫 100은 팬덤 크기에 영향을 받는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해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차트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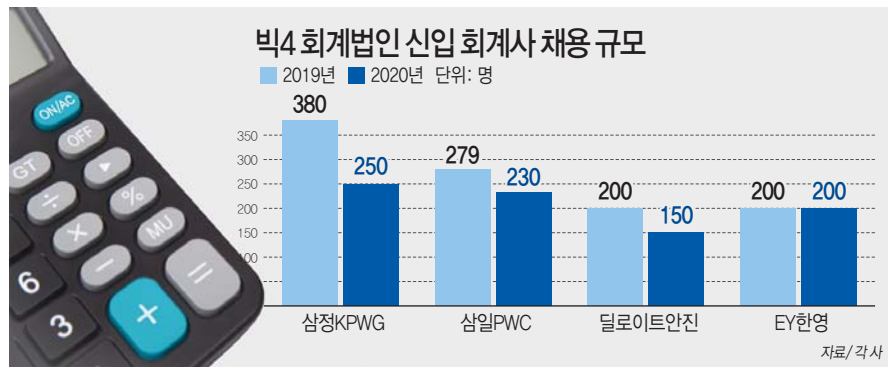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 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로, 경쾌한 분위기의 디스코 팝 장르이며 멤버들이 데뷔 이래 처음으로 영어로 전체 가사를 소화한 곡이다.

이밖에도 다이너마이트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톱 50' 차트에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로 데뷔한 이후 8일 연속으로 3위권 안에 들었다.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자체 최고 순위인 싱글 3위를 기록했다. 30일 MTV 주관으로 생중계된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는 '베스트 팝',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안무' 등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올해는 신입 공인회계사 '영입전쟁' 없다

4대 회계법인 채용 대폭 감소
'비지정 회계사' 속출 우려
올해 '사후 면접' 전무 소문도



올해 공인회계사(CPA) 합격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삼일PWC·삼정KPMG·EY한영·딜로이트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의 채용규모는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

올해는 빅4 회계법인의 '회계사 모시기 전쟁'이 사라질 분위기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에 가지 못하는 '비지정 회계사'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은 올해 830명의 신입 CPA를 채용할 계획이다. 삼정이 250명, 삼일이 230명, 한영은 200명을 채용한다. 안진은 15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1059명에서 21.6%나 줄어 들었다.

반면 올해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1110명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보다 101명 늘었고, 2001년 1014명의 합격자를 선발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가 줄어 들면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신입 회계사들은 빅4 회계법인을 골라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회계법인이 회계사를 고르는 위치가 됐다.

통상 신입 회계사들의 채용은 발표 이전에 이뤄진다. 6월에 CPA 시험을 치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시험생은 7월 초부터 회계법인에 원서를 넣고 사전면접을 시작한다. 회계법인은 이 시기에 미리 신입회계사를 확보한다.

실제 합격발표가 이뤄진 후부터는 회계법인이 추가 면접을 통해 앞서 지원을 하지 않은 신입 회계사를 뽑는다. 이를 '사후면접'이라고 한다. 사전면접에서 여러 회계법인에 합격한 중복 합격자도 있기 때문에 미달되는 인원을 채우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사후 면접'이 전무하다는 소문이 들린다. 빅4 회계법인은 사전면접에서 이미 뽑을 인원을 다 뽑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계획한 채용인원보다 실제 합격인원을 줄였을 수도 있다.

올해 CPA 합격자 A씨는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 합격자는 보통 회계법인에서 먼저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핸 그런 사례도 없는 것 같다"면서 "실제 일부 회계법인은 당초 채용 계획의 80% 수준만 채용한다는 말도 나와서 4대 회계법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합격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최근 수 년간은 빅4 회계법인의 채용 규모가 합격자 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채용인원이 줄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신(新)외감법의 영향으로 상당수의 채용인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회계업계의 반대에도 회계 전문가 수요 확대에 따른 CPA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린 영향도 있다.

빅4로 가지 못하는 인력은 중소 회계법인이나 시중은행, 대기업 등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당 분야의 채용 시장도 얼어 붙은 상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중소 회계법인이 신입 회계사를 뽑으면 교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바로 현장에 투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뽑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중은행, 대기업도 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 회계사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합격자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